‘가득한’과 ‘텅 빈’ 사이 어딘가

이보배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나는 종종 이런 의문이 든다. 인간으로 가득한 텅 빈 거리를 한번이라도 적절한 관심을 갖고 관찰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1]

페르난두 페소아의 이 문장에는 모순이 있다. 함께 병치 될 수 없어 보이는 ‘가득한’과 ‘텅 빈’이라는 두 형용사 사이에 그 어떤 미사여구나 보완설명조차 없기 때문이다. 갈라놓을 수 없을 듯이 바짝 붙어있는 이 두 형용사 사이에 틈을 내어 비집고 들어가 보려 한다. 그리고 그 사이 공간에서 서안나의 작업을 마주해본다.

올해로 25년째다. 서안나(Anna Jung Seo)는 일찍이 2000년부터 영국을 삶의 주 무대로 삼아왔다. 그 긴 여정의 면면을 담은 이번 전시 《*The Ship of Fools*》는 런던 남부에 위치한 앨러펀트 앤 캐슬(Elephant & Castle) 지역의 이스트 스트리트 마켓(East Street market)에서 쌓인 이야기로부터 출발한다. 이곳은 작가가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사용하던 작업실 부근으로, 시장 곳곳에서 여러 감정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교차하는 장면에 그는 금세 매료되었노라고 회상한다. 정육점과 생선 가게가 즐비하고, 또 멀지 않은 곳에서 가판대에 진을 치고 값싼 옷을 파는 일련의 풍경들은 작가가 일정 거리를 두고 목도해 온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서안나의 작업에서 ‘거리(distance)’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 거리는 ‘다름’과 ‘낯섦’을 보게 하는 통로이자,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 “작은 세계 속으로 가라앉아 축소하는 나를 일깨우고 내게 삶의 경이로움에 동참하고자 하는 욕구를 끌어낸다.”[2]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서안나의 작은 화면들에도 그가 삶의 각기 다른 높낮이에서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바라본 이질적이고도 생경한 장면들이 담겨 있다. 특히 전시를 준비하면서는 약 10년 전에 머물던 지역과 노천시장을 다시 찾았다.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이미지를 단순히 답습하듯 화면에 떠내는 방식으로 작업하지 않는 서안나에게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오직 자신의 눈으로 밟아나간 ‘현재’만을 화면 안으로 들일 뿐이다.

그간의 작업을 쫓다 보면 한가지 질문이 생긴다. 작가는 더 큰 캔버스로 옮겨 갈 필요를 애써 찾지는 않았던 것일까? 여러 시도 끝에 서안나는 작은 폭의 화면이야말로 자신이 느낀 즉발적인 감정을 오롯이 담아내기에 최적임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에스키스를 큰 폭으로 옮겨내는 과정에서 당초 담고자 했던 생동감이 소실되는 까닭에서다.[3] 전시의 출품작 20점 중 상당수가 정육점과 생선 가게를 소재로 하는 점만 봐도 그렇다. 물컹한 고깃덩어리와 코를 찌르는 생선 비린내는 어쩌면 ‘가득한’ 죽음과 ‘텅 빈’ 살아있음의 행간을 대변하면서 작은 화면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반경을 은유한다. 가판대 위에서 나부끼는 날 것의 강렬함만큼이나 서안나가 화면으로 옮겨낼 필요를 느끼는, 다시 말해 작업의 원천으로 삼는 장면들은 (마냥 발에 채이는 순간들이라기보다) 역설적이게도 작은 화면에 들어가기 위해 선택받아야 하는 위치에 놓인다. 이번 전시에는 마켓, 펍(pub), 갤러리 오프닝과 같이 생활 반경에서 마주한 이야기 외에도,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에서 비롯된 <*Farewell 2*>(2025), 『미스 해리엇』에 기반한 동명의 <*Miss Harriet*>(2025) 등 문학작품을 배경에 둔 작업도 함께 소개된다.

“무언가가 좀처럼 웃기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미처 외국어로 번역되지 못한 비극들”[4]

---

[1] 페르난두 페소아, 『불안의 서』, 배수아 옮김(서울: 봄날의 책, 2014), 563.
[2] 서안나 작가노트
[3] 서안나, 이보배와의 인터뷰, 2025년 7월 26일.
[4] 목정원,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서울: 아침달, 2021), 47.

문학에 오랜 시간 곁을 둔 서안나는 잘 알 것이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넘어가는 일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치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여태껏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일이자 그 세계 전부를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말이다. 서안나는 잘 알 것이다. 그리하여 존재, 또는 언어, 또는 세계 사이의 행간을 읽는다는 건 '그 미묘한 차이'[5] 를 끝내 포착해내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일이라는 것을.

전시의 제목 'The Ship of Fools'는 본래 삼면 제단화 형식으로 구성된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작품명이다. 그리고 보쉬의 작품 또한 세바스찬 브란트의 시 「Ship of Fools」에 기반한다.[6] 다만 기존의 레퍼런스와는 구분된 지점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한 서안나는 그간 여러 번의 전시를 통해 거듭 고민해 온 '작업 대상과 자신의 관계'에 주목한다. 작가에게 있어 'Ship of Fools'의 여정은 불안, 낯섦, 두려움, 분열, 불확실성과 같이 마냥 매끄럽지만은 않은 감정과 관계를 동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배에 올라타 있는 서안나에게 이러한 행간—즉, 행과 행 사이, 예술의 대상과 창작자 사이, 예술가-자아 사이, (작가의 오랜 레퍼런스이기도 한) 『마의 산』에서 산 위와 산 아래 사이, 언어로 담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사이, 눈으로 포착한 것과 기억 사이, 삶과 죽음 사이, 이방인으로서 견지하는 시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애써 메우고 규정해나가야 할 영역이기보다, 그의 작업 세계가 자유로이 부유하고 마음껏 항해할 수 있도록 비워진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가득한 텅 빈' 공간으로 말이다.

[5] 이윤희, 「서안나의 미묘한 순간들」, 《낯선 이로부터의 위안》(공작새방, 2022).

[6] 서안나 작가노트